

동호 권상목 동국고전연구원 원장

동호(東湖) 권상목(權相穆, 북야공파, 33世) 동국고전연구원(東國古典研究院) 원장은 1933년 계유(癸酉生)년에 안동시 예안에서 태어나 올해 90세이다. 동국고전연구원을 개원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었고 그동안 제자들만 해도 수십 명을 키웠다. 지금도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서예를 배우겠다고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찾아오지만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권 원장은 몇 년 전부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국헌공(菊軒公, 휘諱 필하必夏) 과 아버지 백전공(白泉公, 휘諱會淵)의 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곧 있으면 증조할아버지 문집부터 출판할 예정이다. 어려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학(家學)을 익히다가 6.25 이후 독립운동가 소근(小楨) 이원일(李源一) 선생에게서 맹자를 배우다 중도에 그치고 직장 따라 서울에 우거하면서 정년퇴직하고서야 다시 당대의 거유(巨儒)인 관재(寬齋) 권숙(權肅) 선생으로부터 사서(四書)를 사사(師事)하여 만학의 공을 이루었다.



동호 권상목 동국고전연구원 원장

서원(陶山書院)을 중수하고 퇴계문인록(退溪門人錄)을 처음으로 편집한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명필로 유명한 대추자(大拙者) 권두응(權斗應, 25世) 등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하는 쟁쟁한 인물들로 즐비하다.

관재 선생은 할아버지 채산(蔡山) 권상규(權相圭)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채산 선생은 일대에 채산의 글을 받지 않는 집안이 없을 정도로 당대의 한학자였다. 관재 선생은 근우한사회(愼友漢詩會)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권 원장은 총무로서 보필하다 관재 선생이 서세(逝世)하자 회장을 맡아 한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2004년 문집 관재만고(寬齋箋稿)를 출판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기렸다. 연구원에는 관재만고 외에도 조선왕조실록(53권)을 비롯하여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사전류 서적이 비치되어 있고, 한국금석문대계(韓國金石文大系), 전서(篆書), 예서(隸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사전 등 서예와 관계되는 책자도 상당수다. 문집으로는 서예전서(西厓全書), 학봉선생문집(鶴峯先生文集), 울곡전서(栗谷全書)와 마지막으로 퇴계의 학통을 이은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의 서산문집(西山文集), 일제의 국권침탈



시조 테사공 필적과 화상(畫像)

에 항거하여 20여일 동안 곡기를 끊고 순국한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1842~1910)의 향산전서(響山全書)를 비치하고 있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1858~1932) 선생의 석주유고(石洲遺稿), 아들 동구(東邱) 이준형(李濬衡, 1875~1942)의 동구유고(東邱遺稿), 손자 소파(小坡) 이대용(李大用, 1906~1952)의 소파유고(小坡遺稿) 등 권 원장이 관재 선생과 함께 편집한 3대 문집도 소장하고 있다. 안동의 삼초(三初)를 모르면 안동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며 안동 삼초를 소개했다. 첫째 만초(萬初)는 석주 이상룡, 둘째 광초(廣初)는 향산 이만도의 아들 기암(起巖) 이중업(李中業)이며, 셋째 범초(範初)는 가산(柯山) 김형모(金滄模)인데 이 세 사람의 자(字)에 모두 초(初)자가 들어가서 삼초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안동권문의 분향 안동과 관련된 안동시사(安東市史), 퇴계학보(退溪學報), 안동시내대지(安東市內洞誌), 안동와룡면지(安東臥龍面誌), 예안면지(禮安面誌), 안동향교지(安東鄕校誌), 예안향교지(禮安鄕校誌) 등도 차곡 차곡 세월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권 원장은 수십 년 동안 고전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 2년 전에는 대학중용정해(大學中庸精解)를 출간했고,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수 손으로 현토(懸吐)까지 단 시전대전정해(詩傳大全精解)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연구원 한쪽 벽에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學不厭教不倦)는 죽자가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말해 주는 듯했다. 편집국장 권행안

지역&인물

대구상인요양병원



대구상인요양병원 원장(원장 권상우, 사진)은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내일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병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을 모토로 2021년 9월 27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개원했다. 대구상인요양병원은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 재활 치료 중점 병원으로, 우수한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로 근육과 관절의 경직을 예방하고 인지 치료 등을 통한 뇌질환 후유증의 악화 방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상인요양병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7번 출구로 나와 200여 미터 직진, 도시철도공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권상우(權相佑, 34世) 원장은 북야공파 종정공-감정공-참봉공계이고 족보에 등재된 이름(族譜名)은 재우(載佑)이다. 경남 창녕이 고향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졸업 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한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홈페이지 www.sih.c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ohos1>



상인요양병원 전경



歲寅萬福(세인만복) 家庭和睦(가정화목)

용맹스런 범띠 해를 맞이하신 안동권씨 문중 모든 분 건강하시고 만복이 가득 하십시오. 가정엔 늘 화목하심을 빌겠습니다.

勤堂근당 權泰殷권태은

도북(道北) 안동권문(安東權門)의 시원(始原)을 찾아서

권충현 (북야공파, 35世, 교육학박사)

필자의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 마을은 안동권씨들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세거지(世居地) 마을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문탄공-화원공-종정공-감정공 할아버지의 후손인 삼괴당 할아버지의 후손 직장공 권극의 할아버지가 임향조로 존송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한 마을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기 때문에 함양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북을 안동권씨 집성촌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도북 권문의 역사는 명확하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료가 별로 없다. 도북 권문 사백여 년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족보 기록과 묘비의 비문 등 극히 일부일 뿐이다. 족보를 보면 도북 권문의 임향조로 존송받는 직장공 권극의(權克義) 공은 “1580년에 태어나 1648년에 서거했다. 산소는 도북 마을 뒤에 있으며 부인은 풍천노씨(豐川盧氏) 첨정(僉正) 사충(士忠)의 따님이다. 묘소는 부군과 함께 모셔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기록으로는 묘비석 비문이 있지만 세계(世系) 외에는 족보 내용 이상의 다른 내용은 없다. 또 하나 기록은 임향조를 모시는 제각(祭閣) 앞의 비문(碑文)이다. 이 비문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 달 뒤에 태어나셨으며 어머니 반남박씨(潘南朴氏)의 독지(篤志)로 열한 살 때 거창 황산에서 도북으로 이주(移寓)했고 만석 거부(巨富) 노씨가 의인(姻子)가 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것이 남아 있는 우리 도북 안동권문 사백여 년 역사의 초창기 기록 전부이다.

여기서 필자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우리 도북 권문 사백여 년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반남박씨 할머니께서 유복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북으로 들어오셨다면 그 할머니가 우리 도북 안동권문의 개창(開創) 조모(祖母)이신데 그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며 왜 도북으로 오셨을까? 두 번째, 청상과부의 유복자 아들을 사위로 맞은 만석 거부 노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곧 도북 권문의 임향조로 존송받고 있는 권극의 공의 부인인 임향조모의 친정은 어디이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 번째 의문을 풀기 위해 반남박씨(潘南朴氏) 족보를 연구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북으로 들어온 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우리 족보의 ‘반남박씨증

형관승남지녀(潘南朴氏贈刑承男之女)’ 딱 일한 자가 모두이다. 단서는 남편인 처사공 권익(權翼) 할아버지가 1559년에 태어나시고 1580년 돌아가셨다는 족보 내용이다. 그러면 그 장인어른은 아마도 1500년대 초중반에 사신 어른일 것이다. 그때쯤 살았던 박승남(朴承男)이라는 어른을 찾으면 된다. 무작정 대구두류도서관으로 갔다. 두류도서관에는 족보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득한 족보들 속에서 반남박씨 대동보를 찾았다. 대동보 앞에 서자기가 막혔다. 책마다 천오백 내지 이천 쪽이나 되는 책들이 열다섯 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그 속에서 승남(承男)이라는 이름 두 자를 찾아내어야 하니 바닷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아닌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기(奪氣)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한 권을 잡아 그냥 펼쳐보았다.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만 쪽도 넘을 대동보 앞에서 아무렇게나 한 권을 뽑아 그냥 펼친 바로 그곳에 승남(承男)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1520년 생, 1585년 7월 3일 졸. 증(贈) 형조참판(刑曹參判)’이라는 글자들이 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밑에는 여섯 명의 아들 이름과 사위 두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6남 2녀의 넷째인 큰딸 자리에 ‘여 권익(權翼) 안동인(安東人) 자(子) 극의(克義)’라 적혀 있었다. 찾고자 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마치 임향조 할아버지를 데리고 도북으로 들어오신 반남박씨 할머니께서 4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찾아온 후손을 손잡아 끌어들이기라도 한 것 같아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등줄기가 서늘했던 것이다.

그 이후 필자는 반남박씨 족보를 연구하여 도북 권문의 새로운 역사를 개창하신 할머니의 집안과 조상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승남 할아버지는 남계 서원 설립 때 통 큰 기부를 하셨던 박승원(朴承元) 공의 동생이었으며, 다섯 명의 대과 급제자를 길러낸 시골 서당의 훈장이었기에 필자가 존경받아야 할 ‘무명 교사’로 예찬했던 당국 정희보(鄭希輔) 선생의 처조카이었다. 반남박씨 할머니 한 분을 찾았을 뿐인데 전에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계(母系)를 알게 되면 부계(父系)만 알 때보다 자신의 세계가 배로 넓어진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도북 권문의 모든 자손은 춘당 박맹지(朴孟智)·박계간(朴桂幹)·박임(朴)·박승남(朴承男) 할아버지의 혈맥을 이은 후손들이다.

개창조모 반남박씨의 아버지 묘소는 유림면 대궁리 사안산 그리고 어머니 묘소는 산청군 북면 고천 어은동에 있으나 큰아버지,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의 묘소는 모두 모간리[수동면 가성 일원]에 있었는데 근년에 한국화이버가 입주하면서 유림면 대궁리 사안산으로 이장되었다. 이런 사실과 두 집안 족보 속의 연대 기록, 제각 앞의 비문등을 연계해서 보면 반남박씨 할머니의 도북 이거(移去)는 임진왜란(1592년)과 어머니의 죽음(1593년 3월 25일)을 계기로 당시 안음현 황산(현재 거창군 위천면)의 시가 마을에서 친정 세거지였던 모간(수동면 가성) 인근 마을인 도북으로 옮겨오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推斷)된다.

반남박씨 할머니의 시아버지는 목재 권여눌(權汝訥) 공으로 삼괴당 권시민(權時敏) 공의 손자였다. 개령 풍천노씨 집안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옥계 노진(盧嶺)·찰방을 지내고 남계서원 원장을 지낸 사암 노관(盧榘), 세평 나주임씨 집안으로 대과를 거쳐 5읍 수령을 지낸 남계 임희부(林希茂)·동계 정운의 이모부 임희수(林希壽)·임희영(林希榮) 그리고 광풍루 앞의 고색장연한 시비(詩碑)로 전설이 된 화계 김덕년(金德年)과 대과 급제후 육전군수를 지낸 그의 형님 완계 김희년(金希年)이 모두 삼괴당의 외손자들이었으니 반남박씨 할머니의 시아버지 목재공 여눌(汝訥) 할아버지는 이들 모두의 외사촌이었다. 모두가 당대 이 지역 최고의 명문 사류(士類)였다.

두 번째, 임향조 할아버지의 장인이신 만석거부 노씨(盧氏)라는 어른은 어떤 분이셨는지 알기 위해 풍천노씨(豐川盧氏) 족보를 연구했다. 송재 노숙대(盧叔大)의 새로운 역사를 개창하신 할머니(盧氏三株)라 칭송되던 노우량(盧友良)·노우명(盧友明)·노우영(盧友英) 삼 형제를 두었다. 둘째 아들 신고당 노우명(盧友明)은 삼괴당 권시민 할아버지의 따님인 권씨부인과 사이에서 노진(盧嶺)·노관(盧榘) 형제와 영전자 신잠(申潛)의 부인이 된 풍천노씨 2남 1녀를 낳았으며 셋째 아들 노우영(盧友英)은 노정(盧禎)과 노상(盧祥) 형제를 두었다. 노진·노관 형제와 노정·노상 형제는 사촌 간이다. 임향조모 풍천노씨의 아버지 노사충(盧士忠) 공은 옥계 노진 선생의 사촌 노정 공의 장남이었다. 도북 권문의 자손은 모두 송재 노숙동(盧叔同)·노분(盧汾)·노우영(盧友英)·노정(盧禎)·노사충(盧士忠) 할아버지의 혈손(血孫)이며, 노진 노관의 후손들은 모두 우리 권문

고양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일자리창출 유공



고양상공회의소(회장 권영기, 사진 가운데)는 지난 달 28일 ‘2021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장년고용촉진 부문(단체) ‘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양상공회의소는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해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고양시 및 인근 지역 기

업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확대와 좋은 일자리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일자리창출지원,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등 4개 부문에 대한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의 후손이다.

풍천노씨 할머니 쪽 조상님들 산소는 삼괴당 할아버지의 외손자 노진 선생 덕분에 쉽게 찾았으나 반남박씨 할머니 쪽 조상님 산소를 찾은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필자는 겨우 지난 9월 1일에야 박승남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도북 권문의 초기 역사를 알고자 노력한 지 삼 년만이었다. 산소를 찾아가면서 우연히 까막섬에 들어갔다. 긴 장마 끝이라 불어난 물로 그곳은 마치 호수처럼 넓었다. 그래서 예부터 서호(西湖)라 불렀나 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래프팅질 가던 곳이다.

불어난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강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지리산 영봉들이 구름 사이로 그림처럼 보였다. 이 멋진 풍경 속에 와룡정(臥龍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어느 집안 누구의 정자인지 참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며 탄성을 발했다. 정자 앞에 용호박선생유적비(龍湖朴先生遺蹟碑)라는 거대한 비석이 있어 읽어보니 선생의 휘는 문영(文)이요 부(父)는 행(行)이며 조부(祖父)는 승남(承男)이라 적혀 있었다. 바로 박승남 할아버지의 손자가 즐겨 찾으신 곳이었나 후손들이 그 어른을 기리기 위하여 중건한 정자였다.

도북권문 임향조는 박승남 할아버지의 외손자요 용호 선생은 친손자이니 두 분 사이는 내외종 4촌 간이다. 또한 도북권문 임향조모 풍천노씨의 아버지는 노우영(盧友英)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정(楨)의 아들이요 용호 선생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 상(祥)의 따님이니 용호 선생과 도북권문 임향조모는 6촌 간이다. 결국 와룡정 주인 용호 선생은 우리 임향조부모님과는 이리 4촌 저리 6촌이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었는가.

필자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서 이런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와룡정은 나와 별 상관없는 하나의 멋진 정자에 불과했을 텐데 그런 관계를 알고 있었으니 비문을 읽자마자 처음 온 와룡정이 너무도 친숙한 곳으로 다가온 것이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말을 이처럼 실감한 적이 없다.

우리 도북권문의 시원(始原)을 연구한 결과 도북권문 후손들은 모두 안동권씨인 동시에 반남박씨의 후손이며 풍천노씨의 후손이다. 어머니의 모계까지 살피면 그 범위는 다시 두 배로 늘어난다. 모계를 잇어버리면 우리의 세계는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이것이 필자의 안동권씨 도북 세계 시원 탐구의 결론이다.